

작가 의도



작가
심 상 교

횃집이 많은 작은 포구 마을에서 국물 맛이 기가 막힌 국밥집을 운영하며 홀로 사는 여자 백화는, 혼외자에 천애 고아로 태어났다. 그녀의 불행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호르몬 이상 현상의 난임(불임)으로 남편 태천에게 버림받은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불행에 억압된 백화가 가진 애환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그녀의 삶에 반영된 포구 사람들이 지닌 개인적 아픔과 삶의 냄새들....

이 작품은, 인간 누구나가 지닌 억압 요소들을 백화라는 여자의 삶과 주변 인물들, 그리고 느닷없이 벌어지는 듯한 사건들의 전개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 숨은 위태로운 삶의 실체를 일반화하여 우리네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의도하였다.

기획 의도



기 획
홍 영 미

작품 <월영백화>는 극단 아세이 창단 목적성과 부합되는 목표로 설정하여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극 장기 프로젝트! '우리 지역 작가 창작 희곡 살리기'의 아홉번째 작품이다.

'심상교' 작가님과 2023년 <해화 표구사>, 2024년 <가판대 2> 공연에 이어 세 번째로 함께하며 우리 지역 창작 희곡의 가치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 공연이 우리 지역 창작 희곡 활성화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드러나지 않은 억압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 억압을 극복하며 사는가? 그 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는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불행에 억압된 불운한 일생을 살아온 여자 백화의 삶에 반영된 애환을 들여다보며, 인간이 지닌 다른 듯 같은 억압의 요소를 새삼 반추해 보고, 지금, 여기,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위태로운 일상,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연출의 작품 구상

* 사람들이 애써 숨겨놓는 개인의 애환을 일반화한다.

<월영백화>(月影白花)는 주인공 백화의 출생 비화를 바탕으로 깔고, 어느 한순간 번개같이 들이닥치는 사건과 사람을 통한 반전의 묘미를 던지면서, 느닷없고 급작스러워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결국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개인의 일상 주변 어디에서나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제시한다.

* 막장 드라마 같고 신파 같은 위태로운 일상의 다양한 현실을 직시한다.

치솟는 물가와 양극화된 빈부 격차 속에, 막장 드라마나 신파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건(살인, 사기, 각종 범죄 등)과 상황들의 비현실적인 부조리를, 일상다반사로 보고 느끼며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내 일이 아니라서 나와 무관한 일은 더 이상 없다.” 그래도 삶은 그저 계속된다. 그게 위태로운 일상 속, 다양한 현실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우리네 일상의 소소한 가치를 되돌아본다.

사람들이 지닌, 각자의 환경에 의해 억압된 애환들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혹은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가려진 아픔이다. 연출은 이런 관점에서 극 중 인물의 숨겨진 애환과 급작스러운 상황들을 최대한 일상의 사실로 드러나도록 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타인의 불행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자신의 현재를 반추하여 지금 우리가 지닌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의도한다.

작품 [Synopsis]

천애 고아로 태어난 백화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한적한 고향 포구마을에서 국물 맛이 기가 막힌 국밥을 파는 '월영'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산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하여 뒤숭숭해진 마을 사람들은 자기방어적인 태도로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은근히 바람 나서 도망간 백화의 남편, 태천을 의심하고 백화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그날, 야심한 시각에 만삭의 갈 곳 없는 젊은 여자 경숙이 '월영'에 찾아온다. 백화는 자신의 신세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경숙을 잘 보살펴 준다.

사실 경숙은, 태천이 백화의 돈을 훔쳐 오라고 보낸 여자이다.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백화. 그러나 그녀는 태천과 백숙의 아기를 위해 돈가방과 통장, 도장, 현금카드 등을 내어준다.

다음 날, 살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어수선한 가운데 상인이 와서, 태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막장 드라마 같고 신파극 같은, 숨겨진 일상의 실체”



연 출
호 민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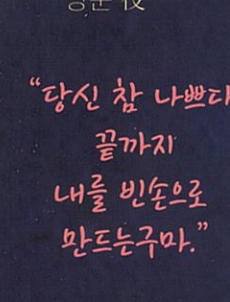
이 현 옥
양순 역



황 창 기
갑식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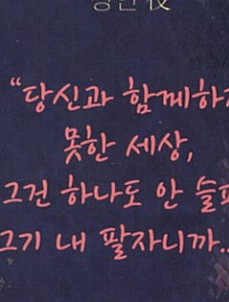


박 센
살인 역



“당신 참 나쁘다.
끝까지
내를 빈손으로
만드는구나.”

구 민 주
백화 역



“당신과 함께하지
못한 세상,
그건 하나도 안 슬퍼.
그기 내 팔자니까....”

임 수 연
숙경 역



한 아 름
경숙 역



김 성 은
양밀 역

“이년아, 너는 저 배꽃처럼 희고 곱게만 살아라”